

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과 해외무역의 변영

-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

高明秀(忠南大)

1. 머리말
2.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대외정책
3. 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
4. 맺음말

1. 머리말

1276년 몽골은 남송을 병합하여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후 통상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동남아·인도양 해역을 무대로 해외무역을 크게 활성화시켰다. 몽골시대 해외무역이 교역규모, 교통범위, 항해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공전의 번영을 이룩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그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그 초점은 대부분 몽골시대 해외무역의 번영상을 복원하거나 몽골정부가 수립·추진한 해외무역 관리·운영제도의 내용과 변천을 살피는 데 집중되어 있다.

몽골시대 해외무역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몽골이 교역대상인 南海諸國과 맺은 정치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몽골시대 해외무역의 변영에서 몽골-남해제국 간 외교관계가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몽골시대 해외무역이 전대에 비해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몽골-남해제국 간 외교관계를 이전 唐·宋왕조가 그들과 맺은 전통적 冊封-朝貢관계와 다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몽골-남해제국 간 외교관계 형식의 기본적 토대가 대체로 쿠빌라이 시대 마련되었으므로, 무엇보다 쿠빌라이 정부가 남해제국에게 추진한 외교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쿠빌라이 이후 몽골왕조를 전통적 중국왕조(元朝)로 인식하는 대다수 학자들은 쿠빌라이 시대 수립된 몽골-남해제국 간 외교관계를 ‘중국적’ 책봉-조공관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쿠빌라이 정부가 추진한 남해정책의 실제상을 구체적·실증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그것이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에 근거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몽골시대 해외무역의 변영에서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 우선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대외정책 방식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고, 쿠빌라이 정부가 그에 입각하여 남해제국과 전형적 책봉-조공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형식의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그것이 몽골시대 해상교역 번영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대외정책

匈奴 이래 북아시아 유목제국 군주들은 주로 자신의 권위의 원천을 ‘탱그리’(Tengri) 즉 ‘하늘’(神)에서 구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늘의 아들(天子)이거나 하늘의 명(天命)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그것을 부족민들에게 표방하여 그들에 대한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천자·천명관념은 농경사회 만큼이나 자연현상의 변화가 생존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고대 유목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북아시아 유목민족에게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샤머니즘의 전통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칭기스칸도 몽골제국을 건설하기 전부터 자신의 권위와 부족민에 대한 지배의 이념적 근거를 하늘에서 구했다. 일찍이 테무진은 메르키트 부족을 섬멸한 후 “천지가 힘을 더해 주사 권능 있는 하늘이 이름 지어 주시고, 어머니이신 대지에 이르게 하시어, 사나이가 원수의 메르키트 사람들을, 그들의 가슴도 비워놓았습니다”라고 하였고,¹⁾ 케레이트 부족을 평정한 후 “영생의 하늘에 가호되어 케레이트 백성을 굴복시키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을 하늘에서 찾았다.²⁾

따라서 몽골제국 성립시기 이미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그가 ‘초원의 지배자’ 단계를 넘어 (천명을 받은) ‘모든 세상의 군주’라는 관념이 존재했다. 그러나 몽골제국 성립 초기 이러한 천명관념이 주변국에게 완전한 복속을 요구하고 대외정벌의 유일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칭기스칸이 호레즘의 술탄 무하마드에게 화평을 제안하면서 보낸 서한에서 그를 ‘귀한 자식’이라 호명하여 자신의 우월함을 내보이면서도, 한편으로 그의 강대한 세력과 권위를 인정하여 일방적 복속을 요구하지 않고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공존하고 평화로운 통상관계를 수립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³⁾ 호레즘에 파견된 몽골 사신과 상인 일행이 오토라르 지역 지방관에게 모두 살해되고 재물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가 호레즘 정벌에 착수하면서 그 주요 동기를 ‘모든 세상을 지배하라’는 천명보다 호레즘의 ‘적대행위에 대한 복수’에서 구한 사실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⁴⁾

그러므로 칭기스칸 초기 대외정벌의 이념적 기반은 ‘천명’이라는 종교적 관념과 ‘복수’라는 현실적 명분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된다. 1220년 부하라를 점령한 후 주민들에게 “여러분! 그대들은 큰 죄를 지었고, 대신들은 그 수괴라는 사실을 알아두시오. 이렇게 말하는 데 어떤 증거가 있느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내가 신의 징벌이라는 점을 말하겠소. 만일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위대한 신께서 그대들에게 (나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오”라고 한 발언도 그가 이러한 관념을 몽골인 뿐 아니라 각 지역 피정복민에게 적극 표방했음을 말해준다.⁵⁾

그러나 칭기스칸은 호레즘 정벌 과정에서 몽골군에게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서 기존의 천명관념을 점차 대외정벌의 유일한 동력으로 삼는 단계로 발전시켰다. 1221년 그는 니샤푸르의 대인들에게 귀부할 것을 종용하면서 전한 칙령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관념을 처음으로 대외정벌의 유일한 이유로 표방했다.

아미르들과 대인들과 많은 백성들은 위대한 신께서 해가 뜨는 곳에서 지는 곳까지 지상의 모

1) 유원수 역주, 『몽골비사』, 사계절, 2004, 78쪽.

2) 『몽골비사』, 164쪽.

3) 라시드 앳 딘 지음, 김호동 역주, 『칭기스칸기』, 사계절, 2003, 310~311쪽.

4) 『칭기스칸기』, 312쪽.

5) 『칭기스칸기』, 339쪽.

든 곳을 내게 주었다는 것을 알라! 누구라도 복속하면 그 자신과 처자식들과 권속들에게는 자비가 있을 것이나, 누구라도 복속하지 않고 적대와 저항을 앞세운다면 그는 처자식들과 권속들과 함께 파멸하고 말 것이다.⁶⁾

위 칙령에서 칭기스칸은 일찍이 자신의 군사활동을 호레즘 지배층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선전한 것과 달리 니샤푸르 대인들이 복속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로서 자신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라'는 천명을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그 시기 비로소 몽골의 고유한 천명관념이 정복전쟁의 유일한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칭기스칸 시기 확립된 천명관념과 세계관은 그 후손들에게 변함없이 계승되었다. 카르피니는 여행기에서 당시 몽골인이 세계정복의 야망을 품고, 서유럽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이유가 '그들만이 몽골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여 당시 몽골의 천명관념과 세계관이 이방인인 자신이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몽골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음을 증언한다.⁷⁾ 이는 구육이 카르피니를 통해 로마교황에게 전달한 서한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거기에서 구육은 오직 '모든 지상을 지배하라'는 천명에 근거하여 로마교황에게 서유럽 기독교 세계의 완전한 복속을 요구했다. 그리고 그가 로마교황에게 직접 몽골궁정에 와서 조근하라고 여러 차례 명한 내용을 통해 당시 몽골 군주가 요구하는 유일한 복속 표시가 외국 군주의 親朝였음을 알 수 있다.⁸⁾ 1254년 몽케는 프랑스 왕 루이 9세가 파견한 수도사 루브룩을 접견하고 그를 통해 루이 9세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그 편지에서 몽골이 주변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전쟁'과 '평화'로 양분하고, 몽골에 복속하는 것이 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언급은 그 시기 몽골인의 대외인식 속에 오로지 전쟁과 복속(평화)만 있고 대등한 입장에서의 화평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⁹⁾

이와 같이 몽골인은 칭기스칸 시기 확립된 천명관념과 세계관에 근거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계제국'으로 간주하고 온 세상 모든 지역과 사람들을 실제적·잠재적인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즉 몽골인의 세계관 속에는 동등한 나라와 백성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이미 실제 지배하는 국가·백성과 향후 반드시 정복·복속시켜야 할 대상만 있을 뿐이었다. 몽골은 철저하게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주변국에게 완전한 복속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가공할 기마 전투력을 활용해 정복전쟁을 단행했다. 그 결과 몽골은 단시간에 유라시아 대륙 대부분 포괄하는 광대한 지역을 점령했다.

3. 쿠빌라이 정부의 南海정책

1264년 쿠빌라이는 동생 아릭부케와 벌인 카안위 계승분쟁에서 최종 승리하여 카안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고하게 수립했다. 몽골제국의 유일한 군주로 자인한 쿠빌라이가 몽골의 고유한 세계관을 답습했음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남송병합 후 그가 日本, 安南, 瑠求에 복속을 요구하면서 보낸 다음 서한에서 외국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복속(평화)과 전쟁으로 양분하고, 복속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침공하여 토멸시킨다는 몽골의 고유한 세계관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6) 『칭기스칸기』, 349쪽.

7) Christopher Dawson, *Mission to Asi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0, pp. 43-44.

8) Igor de Rachewiltz, *Papal Envoys to the Great Khan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1, pp. 213-214.

9) Peter Jackson, *The Mission of Friar William of Rubruck: His Journey to the court of the Great Khan Möngke 1253-1255*, The Hakluyt Society, 1990, pp. 248-250.

우리 祖宗은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아 區夏를 모두 차지하여 먼 異域에서 위엄을 두려워하고, 은덕을 생각하는 자가 모두 셀 수 없을 정도이다. (……) 聖인이 四海를 一家로 만드는 데 서로 通好하지 않으면 어찌 一家의 도리이겠는가. 전쟁에 이르는 것을 대체 누가 좋아하겠는가.¹⁰⁾

祖宗이 법을 세운 이후 무릇 여러 나라들이 귀부하여, 친히 내조한 자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예전과 같이 편안하게 하였고, 항거하고 복종하지 않은 자는 진멸하지 않음이 없었다.¹¹⁾

짐이 생각건대, 祖宗이 법을 세운 이후 무릇 미처 내부하지 않은 나라에 먼저 사신을 보내 초유하여, 내조하면 즉 예전과 같이 편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 반드시 정벌하여 토멸시켰다.¹²⁾

남송병합 직후 쿠빌라이 정부는 南海諸國 대한 招諭에 착수했다. 그 일차적 목적은 역시 몽골의 유일한 군주 쿠빌라이가 고유한 세계관에 근거하여 남송정복에 만족하지 않고 남해제국까지 완전하게 복속시켜 ‘온 세상을 지배하라’는 천명을 실현하고, 자신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보다 현실적인 목적은 일찍이 강남과 교역하던 남해제국을 확고하게 장악하여 당시 쿠빌라이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던 해외무역 육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남송병합 직후 본격적인 남해제국 초유를 앞두고 至元15년(1278) 8월 福建行省 唆都(소계투)와 蒲壽庚에게 내린 “동남지역 섬들에 위치해 있는 여러 蕃國들은 모두 (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蕃舶諸人들로서 짐의 뜻을 선포할 수 있다. 진실로 來朝하면 짐이 그를 총애하고 예로 대할 것이다. 우리와 왕래하며 교역하려는 자에게는 각각 그 원하는 바를 따르게 하라”라는 조서의 내용은 그가 외국상인을 통해 남해제국을 초유하여 그들과 자유롭게 교역하고자 했음을 전한다.¹³⁾

이 같은 적극적인 초유활동을 통해 다음 해(1279) 8월 占城·馬八兒 諸國이 사신을 보내와 조공을 바치는 성과를 거두었다.¹⁴⁾ 그 해 12월 다시 樞密院과 翰林院의 관료들에게 조칙을 내려 中書省, 唆都和 함께 해외의 여러 蕃國을 초유하는 일을 논의하게 하고, 의론이 정해진 후 海內海外 諸蕃國의 왕에게 조서를 보내 그들을 초유했다.¹⁵⁾ 이후 몽골은 매년 동남아·인도양 해역 여러 나라들에게 초유사절을 파견하고, 그들도 여러 차례 몽골에 사신을 보내와 조공을 바쳤다. 『元史』 「世祖本紀」와 「外夷列傳」에 기재되어 있는 쿠빌라이 시기 몽골과 남해제국 간 사신 왕래 기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쿠빌라이 시대 몽골-南海諸國 간 사신 왕래

연도	몽골의 遣使	南海諸國의 朝貢
至元16년(1279)	占城, 安南	占城, 安南, 馬八兒
至元17년(1280)	爪哇, 占城, 安南, 俱藍	爪哇, 占城, 安南, 馬八兒, 俱藍

10) 『元史』 卷208 日本, 4625~4626쪽.

11) 『安南志略』 卷2 大元詔制 至元二十八年諭世子陳詔.

12) 『元史』 卷210 瑠求, 4667쪽.

13) 『元史』 卷10 世祖7, 204쪽.

14) 『元史』 卷10 世祖7, 214쪽.

15) 『元史』 卷10 世祖7, 217~218쪽.

至元18년(1281)	爪哇, 安南, 馬八兒, 占城	占城, 安南
至元19년(1282)	爪哇, 馬八兒, 俱藍, 暹	爪哇, 占城, 安南, 馬八兒, 俱藍, 蘇木達
至元20년(1283)	安南, 俱藍	安南, 馬八兒
至元21년(1284)	安南, 占城, 馬八兒, 緬	爪哇, 占城, 安南, 緬, 馬八兒
至元22년(1285)	安南, 占城, 馬八兒	占城, 眞臘 速木都刺(蘇木達)
至元23년(1286)	爪哇, 安南, 馬八兒, 緬	安南, 馬八兒, 俱藍, 蘇木都刺(蘇木達)
至元24년(1287)		安南, 馬八兒, 俱藍
至元25년(1288)	馬八兒, 安南	安南, 馬八兒,
至元26년(1289)		安南, 馬八兒, 羅斛, 緬
至元27년(1290)	馬八兒	安南
至元28년(1291)	安南, 馬八兒, 俱藍	安南, 馬八兒, 羅斛
至元29년(1292)	占城, 安南, 緬, 暹	安南,
至元30년(1293)	暹	安南

쿠빌라이 시기 몽골이 남해제국과 수립한 외교관계는 외면적으로 과거 중국왕조가 주변국과 맺은 전통적 冊封-朝貢관계를 답습한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실제로 쿠빌라이 이후 몽골을 정통 중국왕조(元朝)로 보는 많은 학자들은 그것을 이전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기본 형식이었던 책봉-조공관계의 연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몽골-남해제국 간 외교관계는 전통적 책봉-조공관계와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주지하듯이 과거 전형적 책봉-조공관계는 각 시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중국황제에 대한 주변국의 朝貢과 그에 대한 중국황제의 冊封·回賜라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유지되고, 조공국이 중국황제의 명목적·상징적 종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정치적 독립성·자율성을 보전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이는 중국황제가 하사품의 명목으로 조공국에게 일정량의 물자를 보내는 대신 형식적 우월성을 보장받는 ‘의례적 상하관계’ 형태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국제질서 안에서 중국황제가 조공국 군주나 그 자제에게 실제적 복속을 의미하는 親朝를 요구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실제로 과거 중국왕조가 일부 외국 군주에게 친조를 요구한 경우는 모두 정치·군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내륙의 인접국에 국한되었고, 외국 군주나 그 자제가 중국에 친조를 행한 사례도 대부분 다양한 정치·군사·경제적 목적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었다. 특히 경제적 성격이 짙은 종래 중국-남해제국 간 책봉-조공관계에서 중국황제가 그 군주나 자제에게 친조를 요구하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친조를 행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쿠빌라이는 남해제국을 초유하면서 시종 그 국왕이나 자제의 친조를 강하게 요구했다. 일찍이 至元10년(1273) 2월 緬國에 사신을 파견하여 子弟近臣을 보내 내조할 것을 요구하고,¹⁶⁾ 至元16년(1279) 12월 占城國王에게 조서를 내려 친히 내조하라고 명했으며,¹⁷⁾ 占城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 해 11월 다시 사신을 보내 그 자제나 大臣을 입조시키라고 명했

16) 『元史』 卷8 世祖5, 148쪽.

17) 『元史』 卷10 世祖7, 218쪽.

다.¹⁸⁾ 또한 至元18년(1281) 11월 爪哇에도 조서를 보내 국왕의 친조를 요구했다.¹⁹⁾ 아울러 『元史』 「外夷列傳」에 “至元23년(1286) 楊庭璧으로 하여금 조서를 받들고 해외 여러 蕃國을 초유하게 하니 (그 나라들이) 모두 내항했다. 무릇 10개 나라였는데 馬八兒, 須門那, 僧急里, 南無力, 馬蘭丹, 那旺, 丁呵兒, 來來, 急蘭亦解, 蘇木都刺이라 칭하며, 모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는데,²⁰⁾ 『元史』 「世祖本紀」의 동일기사에 같은 해 9월 그 10개국이 각각 자제를 보내 표를 받들어 內勤했다고 하여, 그것이 이전 楊庭璧이 그들에게 국왕이나 자제의 입조를 요구한 결과였음을 짐작케 한다.²¹⁾

이러한 쿠빌라이의 남해제국에 대한 친조 요구는 몽골의 전통적인 주변국 복속 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칭기스칸 시기부터 몽골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주변국 군주의 친조를 빈번하게 요구했다. 1209년 당시 카라키타이에 복속해 있던 위구르 군주 바르축 아르테긴이 몽골에 사신을 파견해 복속 의사를 표명하자, 칭기스칸은 “만일 이디쿠트가 진실로 힘을 다 바칠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가 창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이 직접 갖고 오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친조를 명했다.²²⁾ 1211년 칭기스칸이 쿠빌라이 노얀으로 하여금 카를룩을 정벌케 하여 그 군주 아르슬란 칸이 투항하고 직접 몽골궁정에 입조했을 때 쿠빌라이 노얀이 아르슬란 칸을 데려왔다는 기록도 그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칭기스칸의 명에 의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²³⁾ 또한 전술했듯이 구육도 수차례 로마 교황에게 서한을 보내 서유럽 기독교세계의 국왕들과 함께 친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 至元4년(1267) 9월 몽골이 安南에 조서를 보내 요구한 六事에도 첫 번째로 국왕의 친조가 명시되어 있다.²⁴⁾

그리고 몽골 카안은 외국 군주가 친히 입조한 순서에 따라 공적을 평가하여 차등 있게 지위를 부여했다. 즉 보다 먼저 입조한 군주에게 더 큰 공적을 인정하고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는 至元7년(1270) 2월 쿠빌라이가 몽골에 입조한 高麗 元宗을 질책하며 “그대는 늦게 內附했기 때문에 諸王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우리 太祖 시기에 亦都護(이두쿠트)는 먼저 귀부하여 諸王 위에 위치하게 했고, 阿思蘭(아르슬란)은 후에 귀부하여 그 아래에 위치하게 했다”라고 한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²⁵⁾

이와 같이 몽골 카안이 주변국 군주에게 친조를 요구하고 그 순서에 따라 공적과 지위에 차등을 둔 것은 그들이 친조를 가장 확실한 복속의 표시로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쿠빌라이가 남해제국 군주에게 친조를 요구한 것은 그들과 ‘명목적 상하관계’가 아닌 ‘실제적 복속관계’를 맺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변국 복속 방식은 몽골이 전형적 책봉-조공관계에 무지했던 탓도 있지만, 상술했듯이 무엇보다 모든 세상을 실제적·잠재적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몽골의 고유한 세계관에 기반을 둔 것이다. 쿠빌라이 정부의 대외정책 노선이 이러한 세계관에 근거하는 한 조공국의 정치적 독자성·자율성이 보장되는 전형적 책봉-조공관계는 성립되기 어려웠다.

몽골-남해제국 간 외교관계가 전형적 책봉-조공관계와 다르다는 것은 쿠빌라이가 남해제국의 朝貢에 대해 回賜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전형적 책봉-조공

18) 『元史』 卷11 世祖8, 227쪽.

19) 『元史』 卷11 世祖8, 236쪽.

20) 『元史』 卷210 馬八兒等國, 4670쪽.

21) 『元史』 卷14 世祖11, 292쪽.

22) 『칭기스칸기』, 257쪽.

23) 라시드 얏 딘 지음, 김호동 역주, 『부족지』, 사계절, 2002, 247~248쪽; 『몽골비사』, 235쪽.

24) 『元史』 卷209 安南, 4635쪽.

25) 『元史』 卷7 世祖4, 128쪽.

관계에서는 대체로 중국황제가 조공을 받으면 자신의 권위와 은덕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해 조공품보다 더 많은 하사품을 내리는 厚往薄來의 원칙이 견지되었다. 이는 중국황제가 조공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득보다 德化·王化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이념을 더욱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변국들은 대부분 중국황제의 명목적 종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공무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漢·唐시기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宋朝는 북방왕조에 대해 열세에 처한 현실을 만회하기 위해 해외무역을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여러 법규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회사행위를 제한했지만 회사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반면 쿠빌라이 정부는 조공을 바친 복속국에 대해 회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쿠빌라이 정부가 전형적 책봉-조공관계의 본질과 달리 조공국과 교류할 때 중국적 정치이념의 체현보다 실제적 경제이윤 획득에 더욱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쿠빌라이 정부가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과 주변국 복속 방식을 답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친조요구를 통해 적어도 남해제국과 전형적 책봉-조공관계보다 더욱 강도 높은 복속관계를 맺으려 했고, 몽골의 위세를 감지한 여러 나라들도 그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제시한 至元23년(1286) 9월 馬八兒 등 10개국 이 각각 군왕의 자제를 보내 입조했다는 기록이 그 일면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전형적 책봉-조공관계에 익숙한 일부 나라들은 몽골의 강압적·일방적 복속 요구를 거부하여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몽골의 고유한 세계관에 비추어 봤을 때 복속 거부는 곧 '반역'을 의미하므로 무력정벌의 구실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에 쿠빌라이 정부는 복속 요구에 응하지 않은 安南, 占城, 緬, 爪哇에 대해 수차례 정벌을 단행했다. 주지하듯이 쿠빌라이 정부가 동남아원정에 파견한 군대는 모두 토착민의 강렬한 저항에 부딪혀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전쟁 종료 후 몽골은 조속히 그 나라들과 조공관계를 수립했다. 安南과 占城은 전쟁 후 여전히 몽골에 사신을 파견해 복속의 뜻을 표명하고, 大德원년(1297) 2월 緬國도 왕자를 보내 입조했으며,²⁶⁾ 그 해 10월 爪哇도 사신을 보내 내항했다.²⁷⁾ 이와 같이 몽골의 침략을 받은 동남아 국가들은 원정군을 격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 모두 몽골과 조공관계를 맺었다.

이처럼 쿠빌라이 정부의 남해제국에 대한 초유와 정벌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몽골은 고유한 세계관에 입각하여 그들과 '실제적' 조공관계를 맺었다. 이에 몽골이 그들에게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은 몽골이 동남아-인도-서아시아에 이르는 해상항로를 확고하게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동남아-인도양 해역이 몽골이라는 단일한 지배세력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각 지역 간 해상통교의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이를 배경으로 쿠빌라이 이후 몽골정부는 국내 상인의 해상교역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외국 상인을 유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몽골시대 동서 해상무역은 공전의 번영을 구가했다.

4. 맺음말

칭기스칸 시기부터 몽골인은 세상 모든 지역과 사람들을 실제적·잠재적인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제국의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관념을 주변국에게 완전한 복속을

26) 『元史』 卷210 緬, 4659쪽.

27) 『元史』 卷19 成宗2, 413쪽.

요구하고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데 철저하게 적용시켰다. 그리고 이 같은 세계관과 대외정책 기조는 후손들에게 계승되어 쿠빌라이 정부가 추진한 남해제국 초유·정벌 정책에도 적극 반영되었다. 쿠빌라이 정부는 남해제국에게 실제적 복속을 의미하는 국왕의 친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여러 나라들에게 관철시켜 그들과 정치적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된 전형적 책봉-조공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실제적’ 복속관계를 수립했다. 그 결과 몽골은 강남에서 동남아, 인도남부를 지나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안에 이르는 해상항로를 확고하게 장악하고, 통상 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동서 해상교역을 크게 발전시켰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몽골의 전통적 세계관의 계승과 그에 입각한 몽골-남해제국 간 외교관계 수립은 동서 해상무역의 눈부신 번영 즉,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의 주요한 성립조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살필 수 있다.